무공스님은?

제방선원·토굴서 정진
30여년 군포교 매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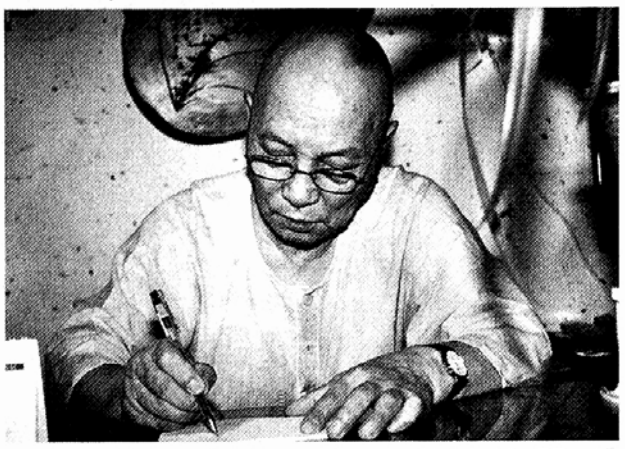


77세의 노구에도 군포교에 대한 정열이 식지 않고 있는 무공스님은 1950년 부산 동아대 정치경제학부에 재학중 학도병으로 징집돼 62년 대위로 전역, 출가한 이력을 갖고 있다. 동기생중에는 정호근 육군 대장 등 많은 장성이 배출될 정도로 군내 서열도 높다.

스님은 62년 범어사에서 前 조계종 종정 고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범어사 송광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이후 6.25때 폐사가 된 청우산 청오사를 중건, 30여년간 불사에 매진하면서 군불교진흥회 이사를 맡는 등 군포교에 대한 원력을 늦추지 않아 왔다.

6.25 때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가했었기에 전쟁의 참혹상을 누구보다도 생생히 겪은 스님은 그래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지만 불과 20년만에 남들이 200년 걸려 이룩한 경제재건을 이룩했어요. 세계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한 우리 민족을 찬양하고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까지 선사하지 않았던가요? 우리 민족은 원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부터 원융화합하고 인류 전체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베풀기만 한 당나라 때 포대화상을 존경해 절 곳곳에 포대화상을 모시고 있다. 무공스님은 종교를 떠나 군내 마을회관을 돌며 연탄과 먹을거리를 보시하고 천주교 복지시설인 가평 꽃동네에도 들러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다.



◇대중포교는 개개인의 신심과 수행의지를 북돋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무공스님.

불자들의 수행을 격려한다.

스님은 매주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는 매일 군법당을 순회하며 군인들의 마음공부와 정서순화를 위해 촌음을 아끼지 않고 있다. 스님이 이렇게 군포교에 애정을 보이는 것은 스님도 지난 6.25 전쟁때 학도병으로 징집돼 군에 있다가 전역하고 출가했기 때문이다. 스님은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에서 전쟁의 처참함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폭력과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느끼게 되었고, 부처님의 비폭력정신과 생명존중사상의 본원을 따라 정토세계를 구현해야 한다는 열망은 더해만 갔다.

작은 욕심도 업 짓는법

스님은 지난 62년 범어사에서 전 조계종 종정 고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범어사 송광사 등 제방 선원에서 열심히 정진했다. 바람 떠도는대로 운수납자의 길을 걷다가 충청도의 이름없는 깊은 산에서 8년간 토굴정진도 했다. 정부의 산림보호정책으로 나중에 산에서 쫓겨 내려오게 되었지만, 스님은 그 때 가장 치열하게 정진했었다고 말한다. 8년간의 토굴생활은 말로 하기 힘든 두타행의 기간이었다. 엄동설한에 길을 걸을 때면 눈썹까지 얼어 얼굴을 감고 다닐 정도였다. 찬 공기를 마시면 가슴이 따가워지는데, 젊은 시절 무모한 고행은 몸을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토굴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은 단식을 하면서 '이 뭣고' 화두를 드는 것이었다. 1주일째가 힘들고, 2주일째가 더욱 힘이 들었다. 된장과 밥 냄새가 절로 나고, 이가 떨리고 배가 너무 고프면서 갈증이 났다. 무엇이든지 먹고 싶다는 욕망만이 간절했다. 하지만 이 고비를 넘자 힘이 덜 들었다. 다음 단계부터는 물 마저도 끊고, 한달 보름의 단식을 이겨냈다. "단식을 하고 화두를 들면 굉장히 머리가 맑아집니다. 바로 무심에 들 수 있어요."

> "아무리 높은 진리도 실천 불가능하면 공론에 불과해요"

스님은 이때의 토굴수행을 늘 잊지 않고 있다고 하신다. 외부의 여건이 어려울수록 내부를 들여다보는 힘이 생긴다고 하신다. 수행자가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면 망상이 들끓고 화두가 순일할 수 없다. 화두라는 하나의 의심 덩어리를 깨기위한 정신집중에 있어, 무(無)에 집착하는 것은 더 큰 병을 낳는다. 즐겁고 좋은 모든 생각과 망상을 끊는 방편에 단식보다 좋은 방편은 없다. 철야정진을 하다보면 어느 때는 스님도 모르게 저절로 졸게 되는데, 이때의 찰나처럼 짧게 느껴지는 1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기도 했다. 온갖 유위법(有爲法)이 곧 망상임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생사가 두렵지 않다. 늑대 같은 산짐승이 나타나도 '내가 나쁜 짓을 않는데 네가 날 어떻게 하겠느냐'는 믿음이 절로 생겨나고 이미 사람과 짐승이라는 구별도 안 생긴다. 그저 친근한 마음만 들 뿐이다. 새들이 좁쌀을 먹기위해 다가올 때는 동물의 예민한 영감을 실감하게 된다고 하신다. 오직 두려워 해야 하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망상과 탐욕.

무공 스님은 1970년경, 가평 청우산으로 가 한국전쟁 때 폐사가 된 청오사를 중건, 30여년간 주석하며 중생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포교는 사람들이 마음의 도리를 깨닫도록 열심히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시시각각 일어나는 망념을 끊어 무심에 들도록 도와야 합니다. 생사가 없는 마음 도리를 경험하면 진공(眞空)이 곧 마음이며, 묘유(妙有)가 대비심임을 깨달아요. 깨달음과 실천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스님은 포교활동도 결국은 불자 개개인에 대한 신심과 수행의지를 높이는데 귀결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노구를 이끌고 군법당을 비롯 각 법회에서 마음공부를 쉼없이 당부한다.

"불가설 불가득(不可說 不可得)의 이 마음은 조그마한 욕심도 업을 짓는 원인이 됩니다. 형태가 없는 이 마음은 보고 듣고 느끼는 한계를 넘어 본질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한한 이 능력을 써먹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근기에 맞도록 심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높은 진리도 실천이 불가능하면 공론에 불과하다. 배고픈 이가 밥부터 먹어야 하듯이 이론과 실천이 합일되어야만 힘을 얻는다고 강조하시는 스님은 불자들부터 사회문제를 잘 알고 이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해석해 불교의 진리로 귀의토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셨다. 스님은 요즘 사람들이 지나치게 경제나 투기에 큰 관심을 갖고 오로지 돈 돈 만을 부르짖으며 돈 벌기만을 바라지만 결국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른 마음을 견지하고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신다.

"옛날 시장에 5명의 떡장사가 나란히 떡을 팔았는데, 유독 한 사람만이 모든 떡을 일찍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를 보고 다른 떡장사들이 이곳저곳 장소를 바꿔보았지만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면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떡장사는 마음이 항상 밝았습니다. 파는 떡도 정갈하고 먹음직스러웠어요. 별다른 재주가 있었던 것이 아니예요. 단골에게 친절하고 정직하며, 큰 이익 생각지 않고 떡을 판 것이 비결아닌 비결이었던 거죠. 결국 남이 벌어다 주는 돈은 즉 마음 씀씀이에 달린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전쟁 안돼

옛날 개성상인의 고사를 또 들려주셨다.

"어느날 한 상인은 아들에게 유언하기를, '아들아, 돈을 벌고 싶거든 목돈이 아닌 푼돈을 벌어라. 돈을 쓸 때는 푼돈을 쓰지 말고 목돈을 써라' 고 했어요. 돈의 효율성을 말한 이 유언은 분수밖의 돈으로 과잉투자하지 말것과 남을 도울 때는 고기 보다는 그물을 사줄 것 즉, 소비재 보다는 생산재를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어요."

돈은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물건이기에 젊을 때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가는 수행이나 공부할 때를 놓치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따라서 마음공부는 무시무처(無時無處)에서 평생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마음공부는 계(戒), 정(定), 혜(慧) 3학을 닦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세간살이 역시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자정기의(自淨其意) 시제불교(是諸佛敎)라는 칠불통계의 가르침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악한 자를 보고 동정심을 내고 나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겠다 새로 마음을 추스리면 악인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선한 자를 보고 존경심과 함께 더욱 선행을 해야겠다는 분발심을 내어 나의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원욱스님의 스님이야기

흥선 스님

몇 해전 나는 유홍준 교수의 한국미술사 강좌를 들으러 열심히 다녔다. 그 강좌가 종강된 후에도 전국의 문화유산들을 찾아 답사를 다녔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절집들이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 오랫동안 나를 행복하게 했다. 아마 그 무렵이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곳이 어딘지 기억도 아스라하지만 어느 고찰이었던 것 같다. 안내가 끝나고 고목 그루터기에 앉아 쉬고 있던 내 귀에 가을바람에 실려 나지막히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함께 답사온 비구스님이 사찰 입구 한 쪽에 서있는 비석의 비문을 능숙하게 읽어 내려가며 회원들에게 옛 스님의 행장을 쉽게 풀이해 주고 있었다. 젊은 비구스님이 다 깎여 흐릿해진 비문을 외다시피 술술 읽는 것에 깜짝 놀랐다. 사실 사교입선(捨敎入禪)의 영향 탓으로 능숙한 번역솜씨를 지닌 스님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그 스님의 학문적 식견은 감탄할 만했다. 그 스님이 흥선(興善) 스님이었다.

내가 다가가 인사를 하며 놀랐다고 하자 스님은 멋적어 하시며 글 읽는 중으로 당연한 일이라며 얼굴을 붉혔다. 흥선 스님은 그후에도 오랫동안 답사회에 나오면서 불교유적, 특히 비문과 사찰연혁기들을 그 해박한 지식을 통해 알기 쉽게

불교문화재 해박한 지식
직지사 박물관장 소임

설명하곤 했다. 스님의 비문강의를 들으려는 이들은 답사행렬에서 슬쩍 빠져 나와 스님뒤만 따라 다녔고 난 한발짝 뒤로 물러나 경청했다.

적멸보궁이 있는 태백의 정암사에 머물던 스님은 내게 기도하러 오라고 했지만 나는 내 사는 것이 바빠서 정암사로 스님을 뵈러 가지 못했다. 소식이 궁금해 질 때쯤 스님이 그곳을 떠나 직지사 박물관장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다. 그 스님만큼 불교문화재와 우리문화 유산에 대해 해박한 이도 드문지라 아주 적합한 소임이란 생각이 들었다. 마침 근처에 살고 있었으므로 스님을 만나러 갔다.

박물관은 기존에 있던 당우를 적절하게 수리하여 막 개관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작지만 탱화와 불교미술품들이 제 자리를 잡고 있으니 기품이 흐르는 공간으로 변해있었다. 박물관장 소임 맡으신 것 축하드린다고 하자 차 한잔을 내밀며 말했다.

"우리들에게 탱화나 불상은 당연히 존귀한 예배의 대상이지만 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뜻하지 않게 문화재 전문 도둑들에 의해 수난을 겪는 세상이 되었지요. 관리소홀과 인식부족으로 도난되거나 훼손되기 일쑤이니 종단에서 큰 맘을 먹고 각 본사별로 해당말사에서 자체적 경비를 할 수 없는 문화재급 성보들을 모아 박물관을 개설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사의 귀중한 성보를 모아 놓고 보존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직지사를 찾는 이들에게 또 다른 신앙의 귀의처가 되도록 해야만 종단의 뜻에 따라 성보를 보내준 말사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지요. 수장고에 가득한 유물들을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각별히 신경 써야 하건만 박물관 전용건물이 아니라 습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매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개관전시를 마치고 나면 성보를 분류하여 박물관도록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중에서 각별한 관심을 지니고 계신지라 어깨가 무겁습니다. 얼마 전에 통도사 박물관에 갔는데 아주 감동했습니다. 사찰 박물관들의 본보기가 되어도 손색이 없더군요. 그렇게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스님을 따라 박물관 수장고를 들여다보았는데 아주 작은 방에 빼곡이 들어 있는 성보들이 하나같이 귀한 것들인지라 마음까지 경건해졌다. 스님은 아마 이 아름다운 성보들을 하나하나 빛나는 보석처럼 박물관 내에 잘 보존하고 전시하실 것이리라.

그 뒤 직지사 박물관에서 고승진영특별전시가



있었다. 그 옛날, 이름을 떨치셨던 큰스님들의 초상화가 진영각을 떠나 흥선 스님의 남다른 꼼꼼함과 뛰어난 안목을 거쳐 직지사 박물관을 무언의 설법장으로 만들었다. 그 뒤 서울로 스님과 동행할 일이 있었는데 뭔지 보자기에 싼 조그만 물건을 애지중지하며 손에서 놓지를 않기에 뭐냐고 물어봤다.

"오래된 경전입니다. 직지사 박물관에서 구입하려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되돌려 주러 가는 길이지요. 제 마음엔 제가 이 소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 인연이 되는 유물은 가급적이면 구입하고 싶지만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 유물구입에 어려움이 큽니다. 사실 불자들이 불사에 시주하는 것도 좋지만 박물관에 시주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스님, 그 경전 얼마면 살 수 있어요?" "아이고오! 내가 괜한 소리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답답한 마음에 그만…"

나는 부득불 스님을 졸라 그 가격이 얼마인지 들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스님의 착잡한 얼굴을 옆에서 지켜보며 나도 우리들의 암울한 현실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계속〉

▨ 반야사 주지

대입수능시험생을 위한, 청소년 불자를 위한

3333배 특별기도 정진

와서 보라! 참수행 기도 현장을,

3333배 특별기도 정진의 부처님 크신 은혜 가피는 기적보다 더 백천만배 강력한 대긍정의 확신의 자신감의 기도 성취의 영험이 있습니다.

<수행내용>

(1) 매 시간 마다 소참법문으로 마음을 밝히고
(2) 4~5분간 죽비소리와 호흡에 맞춰 일괄적으로 절하며 몸을 닦고
(3) 5분동안 부처님전 감사기도 올리고 축원기도로 가피를 받고
(4) 10분동안 휴식하며 환기 시키고 10회를 합니다

마지막 5분동안 대뇌를 각성시켜 졸림, 피곤함, 힘듦, 짜증, 근심, 걱정, 불안,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아만, 교만, 게으름, 나약함, 비판적, 비관적, 부정적인 상념체를 피로물질을 배버리는 것이 중요한 테크닉 입니다

▶일 시 : 2001년 10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9시까지
철수행 교육 9시~일요일 아침 7시 까지

▶준비물 : 두꺼운 기도포수건, 두꺼운 면양말, 세면도구, 면 T2매, 공양미, 절을 氣차게 말하는 법 책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금강지혜보궁 불사도량 **법왕정사**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하차 전화 요
◎서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대명비발디파크스키장 이정표) → 대명 스키장 입구 → 소리산 참선 캠프

수행전문사이트
http://cafe.daum.net/sorisan/
(다음넷 카페 : 소리산 참선 캠프 클릭)

폐암으로 고통받은 네팔인 선재 구릉에 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네팔 노동자 선재 구릉이 부처님의 가피와 여러 불자님들의 아름다운 도움으로 폐암을 이기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폐암을 이기고 힘찬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선재 구릉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백암응화사, 회암사, 대성스님, 대휴스님, 보현스님, 정하스님, 홍현스님, (주)세콩커뮤니케이션(김섭희 대표), 강문주, 강수옥, 고순진, 관세음보살, 김부화, 김원희, 김월숙, 김정애, 김주자, 노귀남, 무여심, 문정애, 민대홍, 박일배, 배경숙, 봉경희, 성옥경, 숙희 건강을, 손영희, 신성옥, 안성은, 우선자, 이기수, 이경희, 이대훈, 이경말, 정영숙, 정윤경, 정현기, 조성은, 조축연, 주영상, 진범중, 진현종

※ 동장에 실린 이름을 그대로 싣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선재 구릉에게 직접 전달하신 분들

삼성의료원, 삼성의료원 법당 정을스님 외 자원봉사자 여러분, 익명의 노보살님, 네팔불자모임(Nepal Budchist Family)

위와 같이 선재 구릉을 위해 후원된 금액은 총 16,674,480원(삼성의료원 8,752,880원, 네팔불자모임 3,950,000원 포함)입니다. 이중 병원비로 14,397,390원(본인 부담 194,510원 포함)이 사용되었고, 나머지 후원금 2,471,600원 전액을 귀국 후 건강한 삶을 위해 선재 구릉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제때에 병을 치료하지 못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외국인노동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회장 영도스님) 합장
서울 중구 명동 15-5 명동빌딩 별관 5층 전화. 3147-2600
후원계좌 : 조흥은행 877-06-008223 (예금주-외국인노동자센터)

3일안에 깨쳐라!

마음과 육체 없음을 체험!

마음의 얽매임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내적평화 모든 정신적 심리적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 절대적인 자유경지를 얻습니다

時空 없음과 生死 없음을 체험

관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전생의 업(유전자)을 스스로 소멸시키고 친가와 외가의 조상님들 영혼을 스스로 천도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확인하며 자신의 소망을 확실히 실현합니다

마음과 육체가 분리됨을 체험

참마음 수련 중 오랜 질환도 다스려져 새로운 건강과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 공개강좌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예약접수)
- 정규수련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화요일 오후 3시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 금요일 오후 3시
- 특별수련 : 개인사정에 따라 시간조절
- 위치 : 강원 홍천 공작산 (서울 강남에서 1시간 20분)
- 문의 :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참마음 수련원 心田堂 (구대광사)

자고나면 온몸이 상쾌해지는 새로운

발 건강법

몸안에 독소를 제거해주는 새로운 발건강법!!



일본大 히트상품

▲ 발바닥에 붙이고 하루 밤을 자고나면 누런 노폐물이 빠집니다.
▲ 만병의 근원인 몸속에 노폐물이 시트에 묻어져 나오는 것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며 아픈 부위나 발바닥에 붙여 독소를 빼내는 방법입니다.

※ 갈라진 발에 좋으며 딱딱한 발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항상 서서 근무하시는 분
- 운동선수
- 항상 몸 컨디션이 불편한 분
- 가정주부

효과가 없을시 100% 환불 보장
- 산후조리, 시고 저린 손발 굳어진 근육, 어깨, 무릎 허리 등이 상쾌해 집니다.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선물!!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우체국 014092-06-011003 (예금주) 김건순

Tel.02]455-6944, 02]453-5851